

2020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 | | | |
|---------|----------------------|--|---------|
| 시 험 시 간 | 09:30 ~ 11:10 (100분) | | |
| 지원학과(부) | 학과(부, 전공) | | 감독위원 확인 |
| 수 험 번 호 | | | ⑩ |
| 성 명 | | | |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합리적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준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주체가 되고, 다른 존재들은 객체이자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로서 '나'의 이성이지 객체로서 자연이 아니다. 이는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을 명백하게 별개로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이며, 주체인 인간에게 객체인 자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이는 인류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심화되고 있는 생태 위기는 인간 본위의 근대적 패러다임이 인류의 생존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은 현대 문명의 여러 문제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안이 아니며, 이 문제의 기저에는 이성 중심의 이원론적 인식론이 숨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현대 문명이 지닌 문제가 이성 중심의 이원론적 인식론을 폐기하는 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 생태학적 인식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층생태학은 탈인간중심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생태계를 바라본다. 즉, 모든 존재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그러한 전체 속에서만 부분들이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에 속하는 일부로 이해한다. 결국 심층생태학이 추구하는 것은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전체 자연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와 깊이 밀착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을 더욱 깊이 있게 관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전체 생태계가 각 부분의 상호작용과 교환에 의해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생태적 자아로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발견한다. 그리고 다른 구성원을 존중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을 정립하고 전체 생태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된다.

(나)

사막에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모래와 모래 사이다.

사막에는
모래보다
모래와 모래 사이가 더 많다.

모래와 모래 사이에
사이가 더 많아서
모래는 사막에 사는 것이다.

오래된 일이다.

- 이문재, <사막>

(다)

천변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어쩌나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내 ㉡ 걱정 아랑곳없이
가르마 길이 나고 그 자리만 잔디가 모두 죽었다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였다
죽은 잔디 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 있는 것이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라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그제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 주고 비켜서 있거나
아예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
그렇듯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 준다는 것도 알겠다
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도 이렇게는 있다

- 복효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1-1. ㉠과 관련된 역설적 깨달음을 담은 시어를 (나)와 (다)에서 각각 한 단어씩 찾고, 깨달음의 공통된 내용을 (가)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25자 이내) [20점]

1-2. ㉡에 나타난 화자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가)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60자 이내) [20점]

1-3. (다)의 제목에서 '덜 미안'하다고 한 이유 두 가지를 해당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지 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국민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부조는 국가의 예산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생활수준에 상관없는 국가의 지원으로서 여기에는 아동수당, 노인수당,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등이 있다. 복지국가는 복지 제도의 비중과 운영 원리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A형은 평등주의를 지향해서 정부의 개입이 가장 많고, 복지 지출의 규모 역시 가장 크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의 비중이 커서 전 국민이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 역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하게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비중은 작은 편인데, 이는 극빈층의 처지 개선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보험과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 덕에 극빈층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한편 높은 세율과 관대한 실업급여로 인해 노동의욕이 낮아서 창업이나 신규 고용을 많이 유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A형이 경제 성장에 좋은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B형은 가족 중심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를 목표로 한다. 복지 지출의 규모는 비교적 커서 재분배 효과는 큰 편인데 복지 제도 중 사회보험의 역할이 압도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이 높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덜 받고 적게 낸 사람이 더 받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한 사회보험이 아니라 직업별 사회보험이 운영되기 때문에 주로 정규직에 종사하는 중산층 노동자 가족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고용보호가 강한 편이며 직업별 사회보험이 발달하여 중산층 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낮다. 그러나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나 실업자,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극빈층이 받는 복지 혜택은 적은 편이다. 또한 고용보호 수준이 높고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창업과 신규 고용을 유인하기 어렵다.

C형은 타인의 간섭과 강제로부터의 자유, 특히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낮고, 복지 지출 규모도 가장 작다.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극빈층만 정부의 선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다. 빈곤층 대상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반면 사회보험이나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덜 발달되어 있다. 복지 제도가 충분치 않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취업 욕구가 강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고가 용이하고 사회보험 부담이 크지 않아 신규 고용에 적극적이다.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창업도 활발하다. 따라서 ㉠ C형이 경제성장에 가장 유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창업과 고용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집안 배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고소득층으로의 진입이 세 유형 중 가장 용이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C형 국가가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1. 아래 [표]의 가, 나, 다 세 국가는 각각 다른 복지국가 유형을 채택하고 있고, 다른 모든 요인은 동일하다. 가, 나, 다는 제시문의 어떤 복지국가 유형에 가까운지 쓰시오.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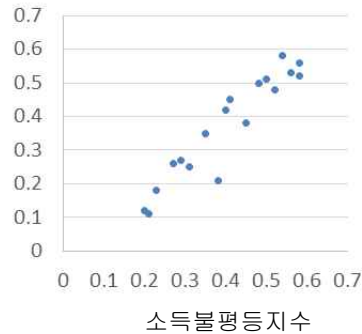
[표]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 소득분위 | 가 | | 나 | | 다 | |
|------|------|---------|------|---------|------|---------|
| | 시장소득 | 조정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조정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조정가처분소득 |
| 1분위 | 15 | 18 | 15 | 22 | 15 | 19 |
| 2분위 | 30 | 39 | 30 | 37 | 30 | 30 |
| 3분위 | 55 | 43 | 55 | 41 | 55 | 51 |

- * 소득분위: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가구 수로 삼등분한 등급. 예를 들어 1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3에 해당함.
- * 시장소득=근로소득+자본소득.
- * 조정가처분소득=시장소득+사회보험 혜택+국가로부터 받은 소득과 서비스-세금과 사회보험 부담금.

2-2. 다음은 A, B, C형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세대 간 소득상관계수의 산포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제시문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35자 이내) [20점]

세대 간 소득상관계수



- * 세대 간 소득상관계수: 부모의 40세 때 소득과 자식의 40세 때 소득의 상관관계로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다.
- * 소득불평등지수: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2-3. 다음 [표]와 [그림]은 가상의 18개 국가에 대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50자 이내)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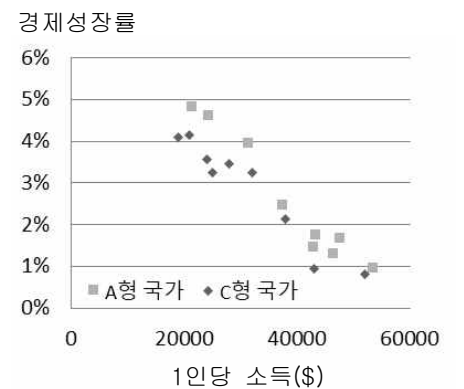
<보기>

한 학자는 아래 [표]를 보고 이 통계자료가 제시문의 ㉠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C형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은 반드시 C형 제도가 경제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래 [그림]을 보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이 (㉠) 경향이 있고, (㉡) 때문이다.

[표] 평균 경제성장률

| 복지국가유형 | 평균 경제성장률 |
|-------------|----------|
| A형 국가 (9개국) | 2.54% |
| C형 국가 (9개국) | 2.85% |

[그림]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애를 이해하는 모형에는 개인 모형과 사회 모형이 있다. 개인 모형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며 치료 모형 또는 개인 중심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 모형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며 사회행동 모형 또는 환경 중심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장애라는 현상을 질병 및 건강 조건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 개인 모형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장애를 개인에게 귀속된 문제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 제한 혹은 심리적인 상실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는 개인에게 발생한 끔찍한 불행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관점은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와 재활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대개 별도의 특수 시설이나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는 비극적 처지에 놓인 개인을 돕기 위해 보상 정책과 치료적 개입을 수행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 관점에서 장애라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는 ㉡ 사회 모형은 장애를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생성된 조건들의 복합체로 본다. 사회 모형에 따르면 장애란 장애인의 사회적 삶을 제한하는 모든 것으로서,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 분리 교육에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까지 그 모두를 포괄한다. 즉, 장애는 장애인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제한이 아니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 내에서 수용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사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실패 결과는 사회 내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차별을 통해 장애인 집단에게 전달된다. 사회 모형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이의 실천 역시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으로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애인은 치료 받고, 개선되고, 수혜받는 무기력한 대상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 있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된다. 또한 모든 장애인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일원으로 자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나) 개인이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은 젠더, 인종, 장애/비장애, 계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권력 작동을 함께 분석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차별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떠올려 보자. 그녀가 경험하는 차별이 과연 그녀의 인종·민족적 차이 때문인지, 여성이라는 젠더 때문인지 뚜렷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혹은 그녀가 경험하는 차별이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고 해도 이주자 남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 교차성은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풀어나가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흑인 여성의 경험은 흑인 남성과도 다르고, 백인 여성과도 다른 고유한 특질을 지닌다. 이 경험은 흑인과 여성, 두 정체성의 총합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마치 흑인 여성이 어느 순간에는 흑인으로만 또 다른 순간에는 여성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교차성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단일한 축으로 특정 집단을 설

명하면서 부지불식간 배제해왔던 다양한 소수자들의 고유한 경험을 발견해낼 수 있다. 주변화되었던 목소리가 사회적 담론이 되고 정치적 힘을 얻게 될 때, 우리 사회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1. ㉠으로부터 도출되는 주장이나 태도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20점]

- <보기>
- A. 노동자들은 장애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
 - B.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 버스를 도입하자.
 - C. 각 지역마다 재활원을 더 많이 설치하자.
 - D.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 E. 장애인도 스스로 노력한다면 비장애인에 가깝게 회복될 수 있다.
 - F. 그 집 애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니? 성금이라도 보내자.
 - G. 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 개발 사업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자.

3-2. ㉡의 입장에서 <보기>의 ㉣를 비판하시오. (160자 이내) [20점]

<보기>

“장애인보호시설을 나와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요? 기가 막히네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사회에 덜컥 나오면 큰일이에요. 우리 애는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오면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도 없고……. 장애인을 혼자 두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시설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우리 부부도 나이가 들어서 생계도 어렵고 몸도 아파서 아이를 돌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 탈시설 운동을 반대합니다.”

3-3. ㉢의 입장에서 ㉣을 고려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을 드러내는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떤 미래학자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마음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인격을 가진 컴퓨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과연 나의 정신을 물려받은 그 컴퓨터가 나와 동일한 인격체일까 하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은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인 '사람의 동일성' 문제와 연관된다. 이는 한 시점의 사람과 다른 시점의 사람을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기억 이론과 두뇌 이론이 있다.

(나) 기억 이론에 따르면 한 시점의 나를 다른 시점의 나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기억에 의한 연결이다. 가령 현재의 내가 과거 10세의 나와 동일한 사람인 것은 바로 10세의 내가 경험했던 바, 느꼈던 바, 행동했던 바 등을 지금의 내가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직관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형태의 기억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나는 3세 때의 나와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인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수정된 기억 이론은 한 시점의 사람과 다른 시점의 사람이 기억의 사슬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하다면 동일한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가령 현재의 나는 3세 때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지만, 6세 때의 나는 3세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의 나는 6세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나와 3세 때의 나는 기억의 사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 이론이 옳다면, 사람의 생물학적 육체가 기능을 정지한 후 그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 컴퓨터가 나의 기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아닌 나이기 때문이다.

(다) 두뇌 이론은 사람의 동일성의 기준을 생물학적 두뇌에서 찾으려 한다. 이 견해는 기억 이론에 대해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조명 받았다. 기억이란 일종의 데이터로서 복사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나의 기억을 한 대의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두 대의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 두 대의 컴퓨터를 각각 A, B라 부르자. 기억 이론에 따르면 $n = A$, $n = B$ 이므로,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A = B$ 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귀결이다. A와 B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로 다툴 수도 있는, 엄연히 다른 독립적인 두 인격체일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나의 기억을 3대, 4대, 심지어는 1,000대의 컴퓨터에도 업로드할 수 있지 않은가? 기억 이론을 가정했을 경우 이런 불합리한 귀결이 따라 나오므로 기억 이론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기억이 사람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복제 문제의 교훈은 기억 자체가 아닌 기억의 매체, 즉 두뇌 역시 사람의 동일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나의 기억을 가진 존재가 지속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의 생물학적 두뇌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기능해야지만 나는 생

존할 수 있다. 나의 두뇌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변화를 겪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나의 두뇌의 일부분이 사고로 손상되거나 두뇌의 세포 일부가 다른 세포로 대체되어도 여전히 나의 두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두뇌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바꾼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두뇌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나의 정신이 업로드되는 컴퓨터는 나의 두뇌라고 할 수 없다. 나의 두뇌가 소멸하고 컴퓨터에 나의 정신을 업로드한다면 나는 나와 심리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인격체를 남기고 죽는 것일 뿐이다.

4-1. ㉠의 입장에서 <보기>의 ㉡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 <보기> —————
철수는 어제 낮에 친구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기분이 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다. 술에 취한 철수는 모욕을 당한 것을 잊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다음 날 철수는 경찰에게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철수는 모욕을 당한 기억만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으므로, ㉡ 폭력을 휘두른 철수와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2. 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원격운송장치'는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D가 C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 <보기> —————
사람 C가 지구에 있는 챔버에 들어가면, C의 두뇌를 포함한 온몸을 세포 단위로 스캔하고 그 스캔된 정보를 화성으로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C의 몸은 파괴된다. 화성에는 또 다른 챔버가 있어서 지구에서 전송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유기물을 재료로 C의 복제물을 만들어낸다. 이 복제된 사람 D는 마치 자신이 방금 전에 지구를 출발해 화성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으로 챔버에서 걸어 나온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두뇌 이론을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 <보기> —————
사람의 두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 뇌가 없어도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고로 한쪽 뇌를 잃은 사람은 원래의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 두뇌 이론 역시 그렇게 판단한다. 이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심폐기능이 정지되었지만 뇌사에 이르지 않은 사람 E의 좌뇌와 우뇌를 분리하여, 심폐기능은 정상이지만 뇌사한 다른 두 사람의 두개골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식 수술 후에는 하나의 뇌를 나누어 가진 두 사람 F와 G가 살게 된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 주의 사막에서 트리니티 실험으로 불린 최초의 핵실험이 실행되었다. 실험 결과 예상보다 3배 이상의 위력을 보인 핵무기의 살상력에 충격을 받은 ㉠ 과학자들은 다음 날인 7월 17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송하였다. 이들의 요구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었다. 우선 최근까지 미국이 적국으로부터 원자폭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염려하였지만 독일의 패배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원자폭탄에 의한 공격은 전쟁을 신속히 끝내기 위한 최후의 확실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태평양 지역 전황은 나쁘지 않아 보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원자폭탄의 살상력을 고려할 때 전후 일본에게 부과될 세부적인 조건들이 공개되고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했음에도 일본이 항복을 거부할 때에 한해 원자폭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이 여전히 도덕적 책무를 가진다고 보았다. 미래에 원자폭탄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파괴력에는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새롭게 발견된 자연의 힘을 파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례를 세우는 것은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 이들은 만약 전후에 경쟁국들이 이 새로운 파괴수단을 아무런 통제 없이 소유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미국의 도시들도 절멸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은 도덕적, 물질적 자원들을 동원해 이런 상황의 도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자들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과 도덕적 의무에 비추어 원자폭탄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호소하였다.

(나) 미 육군은 1945년 가을에 일본 본토의 규슈 섬에 상륙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계획이었고, 우리는 전투가 치열하고 인명 손실이 막대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는 원자폭탄의 사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사상자를 발생시킬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폭탄이 군사적 무기라고 생각했고 신속한 종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 직속 고위 군사자문단도 원자폭탄의 사용을 추천했고, 처칠도 이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 폭탄을 사용하면 그것을 전시국제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그 폭탄을 군사적 중요성이 큰 군수용품 생산 중심지에 최대한 가까이 투하해야 함을 의미했다. 스티븐 장관의 참모들은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일본 도시들의 목록을 준비해왔다. 이들 도시의 군사적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졌지만, 공격 승인은 폭격 당시의 날씨 상황에 따르게 될 것이었다.

- 미국 ㉡ 트루먼 대통령의 회고록(1955) 중 일부 요약

(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 자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립하는 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망설이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냉전이 진행되던 1970~1980년대에 군비 경쟁의 실무를 담당했던 헨리 키신저, 조지 솔츠 등 미국 국무부 출신 전략가들은 핵무기를 전쟁억제용 무기로 보았다. 이것이

바로 ㉠ ‘전쟁억제론’이다. 경쟁국들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해도 상대방이 남아 있는 핵전력으로 보복공격을 하게 되어 양쪽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핵 공격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에게 확실한 손해를 줄 수 있는 전력이 남아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 때, 그 경우를 ‘상호확증파괴’ 상황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핵무기 사용은 전략적 선택사항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론적으로 상호확증파괴 상황에 있는 국가 사이에는 핵전쟁이 억제된다고 주장하였다.

5-1. ㉡이 ㉠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유를 (나)에서 찾고, 여기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래 연표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 <태평양 전쟁 연표>
- 1945. 5. 8. 독일이 항복하고 유럽 전쟁이 종결되었다.
 - 1945. 6. 22. 미군이 오키나와 섬을 점령하고, 일본 본토 공격의 최전선 거점을 확보하였다.
 - 1945. 7. 26. 연합국 정상들은 포츠담에서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 조건에 승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 1945. 7. 28. 일본은 도쿄 라디오 방송을 통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일본 내각은 포츠담 선언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 1945. 8. 6.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 1945. 8. 9. 소련군이 만주로 진격하였다.

5-2. ㉡의 입장에서 ㉠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80자 이내) [10점]

5-3. <보기>의 입장에서 ㉡의 한계를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이른바 명중탄은 발사된 수많은 탄환들 중 하나일 뿐이다. 수없이 탄환이 빗맞은 후에야 우리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게 된다. 사소한 일에서는 낮은 확률의 성공을 위해 많은 실수를 용납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삶에 파괴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종류의 불안과 위험을 산출하지만, 그 엄청난 발전 속도는 자기 수정의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낙관적 기대보다 실패가 가져올 불행의 가능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게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확률에 맡길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타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면 결코 내기를 걸어서는 안 된다. 국가 지도자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영광스러운 미래의 유혹에 빠져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최고의 선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최대의 악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이나 동물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생명권의 침해, 삶의 욕구의 좌절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될 수 있는데 공리주의는 감각적 능력을 지닌 존재가 겪게 될 쾌락의 감소를 그 이유로 제시한다. ㉠ 공리주의는 쾌락만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면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란 사회 전체 또는 세계에서 순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때 순쾌락이란 쾌락의 양에서 고통의 양을 뺀 것을 가리킨다. 만약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한 순쾌락의 총량이 양(+)의 값이면 그것은 좋은 행위이고, 음(-)의 값이면 나쁜 행위이며, 0이면 가치중립적 행위이다. 이러한 윤리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 존재가 죽지 않았다면 느끼게 될 쾌락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행위가 된다.

세계에서 쾌락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즐겁게 살고 있는 존재의 삶에서 쾌락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 자체를 죽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줄어든 쾌락을 느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쾌락을 느끼는 존재가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쾌락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 존재하는 존재들의 쾌락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존재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만약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쾌락의 감소 때문에 나쁘다면, 즐거운 삶을 살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은 쾌락의 증가 때문에 좋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윤리적 견해를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체적 견해'이다. 이 견해는 순쾌락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그러한 증가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의 쾌락을 늘렸기 때문이든 즐거운 삶을 살 존재의 수를 늘렸기 때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사전 존재적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하기로 결정된 존재들의 순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존재를 만들어내어 순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6-1.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제시어에서 고르시오. (중복 선택 가능) [16점]

▶ 제시어: 좋은 행위, 나쁜 행위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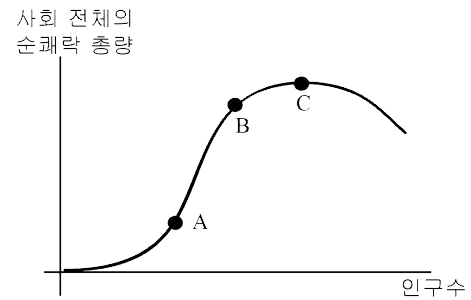
병에 걸려 쾌락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 삶을 사는 물고기를 고통 없이 죽이고 대신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물고기 한 마리를 부화시켜 키우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전 존재적 견해'는 (㉠)라고 평가할 것이며, '전체적 견해'는(도) (㉡)라고 평가할 것이다. 다른 한편 질병을 지니고 있지만 고통보다는 쾌락이 더 많은 삶을 사는 물고기를 고통 없이 죽이고 대신에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물고기 두 마리를 부화시켜 키우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전 존재적 견해'는 (㉢)라고 평가할 것이며, '전체적 견해'는(도) (㉣)라고 평가할 것이다. 단, 이러한 행위들이 앞에서 언급한 물고기들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6-2.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제시어에서 고르시오. (중복 선택 가능) [24점]

▶ ㉤, ㉥, ㉦에 해당하는 제시어: 증가, 감소, 불변
 ㉧, ㉨, ㉩에 해당하는 제시어: 긍정적, 부정적, 가치중립적

<보기>

평균 공리주의는 제시문에서 설명한 공리주의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두고 공리주의와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한다. 평균 공리주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의 기준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갖게 될 순쾌락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때 평균적인 순쾌락의 양은 사회 전체의 순쾌락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아래 그림에서, A에서 B로 변화하면 순쾌락의 총량이 증가하므로 공리주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순쾌락의 평균이 (㉤)하므로 평균 공리주의는(도) (㉦)으로 평가한다. B에서 C로 변화하면 순쾌락의 총량이 (㉥)하므로 공리주의는 (㉨)으로 평가하고, 순쾌락의 평균이 (㉧)하므로 평균 공리주의는(도) (㉩)으로 평가한다.



6-3. <보기>를 바탕으로 ㉩의 문제점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보기>

- A 주장: 갑수와 영호는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이다. 그런데 갑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호를 모욕하는 험담을 하고 다녔다. 영호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쾌감이나 고통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갑수의 그런 행위는 우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쁘다.
- B 주장: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주권자이므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기본적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020학년도 논술(AAT) 고사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인문계열)

인문계열 1번 예시 답안

- 1-1. ① 시어 : 사이, 죽음
 ② 깨달음의 내용 : 모든 존재는 관계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 1-2. 잔디의 죽음을 단절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
- 1-3. ‘덜 미안’하다고 한 이유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속에서 다시 살아났고, 언젠가는 인간도 자연을 위한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문계열 1번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시어 : 사이, 죽음(각 5점) • ② 깨달음의 내용 : 모든 존재는 관계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10점) 모든 존재는 유기적인 전체성을 이루고 있다. <p>① 사이, 죽음 각각 5점, 모두 있을 경우 10점, 한 단어로 답하지 않은 경우 3점씩 감점</p> <p>② ‘관계성’, ‘연결성’, ‘유기적’, ‘상호작용’의 의미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달음의 공통된 의미라고 하였으므로 어느 한 작품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경우는 오답 -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2점 감점, 핵심어만 쓴 경우 5점 감점 -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적절히 감점(3~5점) - ‘밀착된 관계이다’는 오답. | 20 |
|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디의 죽음을 단절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 • 자연을 대상과 객체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존재(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보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2점 감점, 핵심어만 쓴 경우 5점 감점 -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적절히 감점(3~5점) | 20 |
|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덜 미안’하다고 한 이유는 ①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속에서 다시 살아났고, ②언젠가는 인간도 자연을 위한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② 모두 있는 경우 20점, 한 가지만 있는 경우 각 10점 - ①에서 : 잔디의 죽음(훼손)에 대한 해석이 들어 있어야 함. 단순히 ‘인간에게 길(활력, 생명력)을 내어주었고’ 등만 있는 경우는 오답 처리 -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2점 감점, 핵심어만 쓴 경우 5점 감점 -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적절히 감점(3~5점) | 20 |

인문계열 2번 예시 답안

2-1. 가: B형 나: A형 다: C형

2-2.

예1) 제시문은 C형이 재분배효과는 낮으나 집안 배경과 상관없이 고소득층으로의 진입이 용이하여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림에서 소득 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가 세대 간 계층 이동도 어려우므로 제시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예2) C형이 소득 불평등도는 높으나 고소득층으로의 진입이 용이하여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림을 보면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가 고소득층으로의 진입이 어려우므로 제시문의 주장은 맞다고 볼 수 없다.

2-3.

㉠ 낮아지는

㉡

예1) C형 국가들이 대체로 A형 국가보다 1인당 소득이 낮기

예2) 1인당 소득이 비슷할 때 A형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기

인문계열 2번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2-1 | 셋 다 맞으면 10점. 하나만 맞으면 5점. 셋 다 틀리면 0점 • A, B, C 중 하나라도 중복해서 쓰면 무조건 0점 | 10 |
| 2-2 | 1)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 10점. 2) 제시문에서 주장을 제대로 찾아 서술: 10점. • 1)과 2) 모두 제대로 서술하면 20점 부여 • 1)을 제대로 서술하였으나 2)를 잘못 서술하면 10점 부여 • 2)를 제대로 서술하였으나 1)을 잘못 서술하면 0점 부여 • 2)를 찾은 것으로 보이나 명확히 서술하지 않으면 1-5점 감점 • 전체적인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각 1-5점 감점. | 20 |
| 2-3 | ㉠ 10점 낮아지는, 감소하는, 저조해지는 등 뜻만 통하면 10점 부여 ㉡ 20점. • 예2)에서 “1인당 소득이 비슷할 때”, “1인당 소득이 같을 때” 등이 빠지면 0점 • 예2)에서 “1인당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소득의 동일 구간에서” “1인당 소득 별” 등 이해한 것으로 보이나 표현이 애매하면 1-5점 감점 • 내용은 맞으나 괄호 안에 넣었을 때 문장이 안되면 1-2점 감점 • 전체적인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1-5점 감점 | 30 |

인문계열 3번 예시 답안

3-1. A, C, E, F, G

3-2. 장애를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간주하여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장애를 잘 못 이해하는 것이다. 장애는 장애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의 문제이므로 탈시설 후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내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통해 차별적 제도와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3-3.

예1) 여성 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남성 장애인과 다를 수 있는데 그 복합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모든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사회 모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예2) 한국인 장애인만을 중심으로 사회 환경 개선을 고려한다면 베트남 이주민 출신 장애인의 차별 경험을 포괄하지 못하게 되어 모든 장애인이 사회 내에서 자립해서 살아가기 힘들다.

예3) 가정폭력피해를 당한 저소득층 장애 여성이 겪는 문제와 가족의 유대가 강한 중산층 장애 여성의 경험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사회모형은 소외되는 사람을 만든다.

예4)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각각 가진 경우와는 다른 차별을 경험하므로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만을 별개로 고려한 사회모형은 모든 장애인의 고유한 경험을 포괄하지 못해 한계를 지닌다.

인문계열 3번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 E, F, G 5개를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20점 (각 4점* 5 =20점) - A, C, E, F, G 하나당 4점 - B, D 썼을 경우 -4점 - 합계가 마이너스일 경우는 0점 처리 | 20 |
| 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의 탈시설 반대 주장이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실패이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은 사회의 집합적 책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서술하며 비판한 경우 20점 - 장애인 역시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이며 사회 내 격리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일원으로 자립하는 것이 목표라는 진술만 있고, 위의 내용이 없을 경우 -10점 -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2-5점 감점. -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감점. | 20 |
| 3-3 | <p>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채점 (각각 10점씩 나눠서)</p> <p>1) 예시의 적절성: 반드시 장애에 기반한 예시를 들어야 함. 예시에서 장애와 다른 축의 사회적 범주가 하나 이상 교차하며 (예: 여성 장애인,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비교를 통해 (예: 남성 장애인, 남성 이주민 장애인/여성 선주민 장애인 등) 전자가 복합성, 고유성이 있다고 설명해야 함.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성의 예시 자체가 적절치 못한 경우 0점 * 비교를 통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 -5점 * 지금까지 주변화되어 왔던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서술하지 않고 교차성을 마치 서로 다른 정체성의 차이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개념인 것처럼 서술한 예시는 0점 <p>2) 앞서의 교차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사회모형이 목표로 하는 “모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한다(주변화, 배제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의 내용일 경우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어: “모든” 혹은 “주변화, 배제” 등 * “사회 내 복잡한 여러 차별과 배제의 구조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다양한 정체성의 소수자들을 포괄할 수 없다” 식의 서술도 10점 처리 * 교차성을 단지 정체성의 더하기 개념으로 이해하여 “그 중 어떤 정체성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식으로 답변했을 경우 0점 * 교차성을 고려한 사회모형을 단지 개별 장애인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맞추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서술할 경우 0점 <p>- 의미의 완전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2-5점 감점</p> | 20 |

인문계열 4번 예시 답안

- 4-1. 술에 취한 철수는 모욕당한 철수를 기억하고, 술에서 깨어난 철수 역시 모욕당한 철수를 기억하므로, 술에서 깨어난 철수와 술 취한 철수는 기억의 사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둘은 동일인이다.
- 4-2. D는 C의 기억을 갖고 있으므로 (나)에 따르면 D와 C는 동일인이다. D의 두뇌는 C의 두뇌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다)에 따르면 D와 C는 동일인이 아니다.
- 4-3. 두뇌 이론은 F와 G를 각각 E와 동일하다고 본다. 따라서 F=G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별개의 인격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합리한 귀결이다.

인문계열 4번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4-1 | <p>‘수정된 기억 이론’이 기억의 사슬에 의한 간접적인 연결을 동일성의 기준으로 파악한 것을 주어진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채점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술에 취한 철수’(또는 ‘폭력을 휘두른 철수’)와 ‘모욕당한 철수’ 사이의 기억에 의한 연결 및 (ii) ‘술에서 깨어난 철수’와 ‘모욕당한 철수’ 사이의 기억에 의한 연결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서 (iii) ‘폭력을 휘두른 철수’와 ‘술에서 깨어난 철수’ 사이의 간접적 연결을 추론하고 이로부터 (iv) 둘 사이의 동일성을 결론내리는 경우 20점 부여. ‘폭력을 휘두른 철수’와 ‘술에서 깨어난 철수’ 사이에 ‘기억에 의한 간접적인 연결’만 지적한 경우 10점 부여. ‘기억에 의한 간접적인 연결’은 지적했으나, 연결 고리들을 잘못 파악한 경우 5점 부여.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 | 20 |
| 4-2 | <p>‘기억 이론’과 ‘두뇌 이론’을 <보기>에 주어진 사례에 정확히 적용했는가에 따라 채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에 대해서 두 사람(C와 D) 사이의 기억에 의한 연결을 지적하고, 이로부터 두 사람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점 부여. (다)에 대해서 두 사람(C와 D)이 동일한 두뇌를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또는 C의 두뇌가 파괴 되었을 지적하고), 이로부터 두 사람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점 부여.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 | 20 |
| 4-3 | <p>본문에서 소개된 ‘기억 이론’에 대한 ‘복제 문제’가,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두뇌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가에 따라 채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두뇌 이론에 따르면 원래의 사람(E)가 뇌를 나누어 가진 두 사람(F와 G)과 각각 동일함을 지적하고, (ii) 이로부터 F=G임을 추론하고, (iii) 이것이 불합리한 귀결임을 지적하면 20점 부여. 두뇌 이론에 따르면 F=G임은 바르게 추론했지만, 이것이 불합리함을 지적하지 않으면 15점 부여. 자세한 설명 없이 복제 문제가 두뇌 이론에서도 발생함을 지적하면 10점 부여.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감점함. | 20 |

인문계열 5번 예시 답안

5-1.

㉔은 신속한 종전을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이는 일본이 결사항전을 결의하여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일본이 포츠담 선언의 항복조건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5-2.

경쟁국들이 서로 핵무기를 소유하면 선제공격해도 자신도 핵무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5-3

핵무기 보유 같이 중대한 일에는 낙관적 기대보다 불행의 예측을 더 중시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게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확률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인문계열 5번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5-1 | <p>▶ (나)의 내용을 보고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한 이유를 찾아내고, <태평양 전쟁 연표>에서 과학자들이 제기한 원자폭탄 투하의 요건이 해결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p> <p>① ㉔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히 종전하기 위해 원자폭탄 투하했음을 파악한 경우 (10점) ② 1945.7.28. 일본이 본토 결사 항전을 선언해 전쟁 장기화 예상됨을 파악한 경우 (5점) ③ 1945.7.28. 일본 내각이 포츠담 선언 수용을 거부해 항복 기회를 거절한 것 파악한 경우 (5점) * 밑줄 친 핵심 표현이 들어갔는지 여부로 판단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 20 |
| 5-2 | <p>▶ (다)에 나오는 '전쟁억제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의 과학자들이 주장한 내용(㉔)을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함</p> <p>① ㉔전쟁억제론의 주장: 경쟁국들이 서로 핵무기를 소유해도 오히려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5점) ② 위 주장의 근거: 선제공격을 해도 반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5점) * 위의 내용 대신 "상호확증파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쓰면 3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 10 |
| 5-3 | <p>▶ <보기>의 주장을 파악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㉔전쟁억제론을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함</p> <p>① <보기>의 주장1: 핵무기 보유 같이 중대한 일은, 불행의 예측을 중시해야 한다 (10점) *핵무기 보유가 <보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일(혹은 파괴적 변화 가져오는 일)임을 언급해야 함. 생략시 3점 감점 ② <보기>의 주장2: ㉔ 자신과 타인에게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㉔확률에 맡겨서는 안된다.(10점) * ㉔에 대체 가능한 표현: '인류의 생존에 관한 결정을', '타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안을' * ㉔에 대체 가능한 표현: '내기를 걸어서는 안 된다', '위험받을 가능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㉔, ㉔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만 쓸 경우 5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 20 |

인문계열 6번 예시 답안

6-1. ㉠: 좋은 행위, ㉡: 좋은 행위, ㉢: 나쁜 행위, ㉣: 좋은 행위

6-2. ㉤: 증가, ㉦: 긍정적, ㉧: 증가, ㉨: 긍정적 ㉩: 감소 ㉪: 부정적

6-3. 우정과 같은 것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니는데 공리주의는 쾌락만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권리)가 있는데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행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공리주의는 쾌락 이외에 우정과 같은 것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이익(행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인문계열 6번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6-1 | <p>▶ ㉠~㉣에 들어갈 말을 제대로 선택했는지를 평가함.</p> <p>답안 ㉠: 좋은 행위 ㉡: 좋은 행위 ㉢: 나쁜 행위 ㉣: 좋은 행위</p> <p>- 해당하는 말을 기입했으면 1개당 4점씩 부여함.(총 16점)</p> <p>- 오자, 탈자, 답안 일부 기입 등은 모두 오답 처리함.</p> | 16 |
| 6-2 | <p>▶ ㉤~㉪에 들어갈 말을 제대로 선택했는지를 평가함.</p> <p>답안 ㉤: 증가 ㉦: 긍정적 ㉧: 증가 ㉨: 긍정적 ㉩: 감소 ㉪: 부정적</p> <p>- 해당하는 말을 기입했으면 1개당 4점씩 부여함.(총 24점)</p> <p>- 오자, 탈자, 답안 일부 기입 등은 모두 오답 처리함.</p> | 24 |
| 6-3 | <p>▶ <보기>를 바탕으로 ㉣의 문제점 두 가지를 제대로 서술했는지를 평가함.</p> <p>답안: 우정과 같은 것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니는데 공리주의는 쾌락만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권리)가 있는데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행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p> <p>(공리주의는 쾌락 이외에 우정과 같은 것도 도덕적(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이익(행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p> <p>- 2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서술했을 경우에 1가지당 10점씩 부여함.(총 20점)</p> <p>-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p>- <보기>와 관련되지 않은 공리주의의 일반적 문제점만을 서술한 경우에는 오답 처리함.</p> <p>* 오답 사례</p> <p>공리주의는 결과만을 중시하고 동기를 간과하고 있다.</p> <p>공리주의는 쾌락(고통)의 총량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p> | 20 |